

성가소비녀회 (聖家小婢女會)
LITTLE SERVANTS OF THE HOLY FAMILY
www.holyfamily.or.kr

2020년 12월 25일
제9호

강생의 길을 따라

Along the way of the Incarnation



0272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9길 46
46, Gireum-ro 9-gil, Seongbuk-gu, Seoul, Korea
Tel 02)940-5800
Fax 02)943-1603

www.holyfamily.or.kr



예수께서 “세상에 가서 전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소비녀들도 “가시오”

(소비녀들에게 74쪽)

Jesus said, “Go and spread the Good News”.
Therefore, “Go” Little Servants and do likewise!

- | | |
|-------------------------------------|--------------|
| 04 강생의 길을 따라 | 총장 이 프리스카 수녀 |
| 20 선교 지역 소개 : 캄보디아 | 편집부 |
| 28 “주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 주십시오.” | 박 세라피나 수녀 |
| 33 켄나움 성당 교우들의 결혼식 | 이 마리아콜베 수녀 |
| 37 코로나19로 멈춘 것들... | 권 벨리나 수녀 |
| 42 조선인 속의 소비녀 | 이 스테파노 수녀 |
| 48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이 기쁨 수녀 |
| 60 33년의 아르헨티나 한인성당 사도직을 정리하며... | 차 클레멘스 수녀 |
| 66 아이들이 희망이다! | 김 아곱 수녀 |
| 69 볼리비아에서 만난 아주 특별한 과일 | 이 폴 수녀 |
| 74 “Dios le bendiga” – 하느님의 축복을 빕니다 | 이 체칠리아 수녀 |
| 77 후원 | |
| 78 해외 선교 지역 | |

2020년 제9호

「강생의 길을 따라」 선교지는 성가소비녀회 설립일에 연간 1회 발행하며,
모든 이들과 함께 선교 체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발행처 성가소비녀회 0272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9길 46

발행인 이 프리스카 수녀

발행일 2020년 12월 25일

홈페이지 www.holyfamily.or.kr

표지사진 볼리비아 산호세 지역 방문 중 4형제의 집 앞에서

강생의 길을 따라

총장 이 프리스카 수녀



2020년은 역병이 온 지구촌을 강타하면서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역병은 공동의 집에 위기가 닥쳤음을 경고하는 빨간 불 중의 하나일뿐입니다. 그동안 성장과 발전만을 향해 달려온 인간들에게 멈추고, 돌아보고, 고민하라고 손발 쫄쫄 묶어놓고 있습니다.

남미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파견된 수녀님들은, 이 역병으로 인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더 마음을 아파하며 위험도 마다하고 방문하면서 필요한 식량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리 곳곳에서 만나는 생계 수단을 잃은 이들의 배고픔을 함께 느끼면서 몸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수녀님들은 자신들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는 그 마음과 행동으로, 주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자신들을 봉헌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보여준 긍정적 효과 중 하나는 지구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깨닫게 하는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17차 수도회 총회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현실이 피부에 와닿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되었습니다. 이 현실은 우리를 인식이나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실제적인 삶의 형태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선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외 해외 구별 없이 삶의 양식에 대한 긴급한 요청을 촉구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지구는 수도회 총회에 선교에 대한 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선교에도 대담한 출애굽을 하라는 도전으로 다가왔고, 안정적인 선교 방식에서 벗어나고 우주적인 비전으로, 하느님의 다스림으로 사명에 대한 새로움,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초대한다.”라는 설명과 함께 ‘근본적인 변화와 창조적이고 대담한 방식의 선교를 촉구하고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급격하게 밀려드는 수도회 외부와 내부의 환경 변화는 해외 선교에 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또 다른 변수에 속합니다. 수도회 총회에서 결정되는 의안에 따라 선교에 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일은 일차적으로는 현장에 있는 수녀님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성찰의 대안으로 공동체와 공동체적 생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공유와 나눔, 돌봄과 협력, 소통과 연대 등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로 인해 각 생명들은 그 고유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상생의 여정을 살게 됩니다. 이

01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 기간에 Our Lady of Peace의 무허가 지역에 거주하는 70가구 정도 빈곤층 사람들에게 총원에서 특별 후원금으로 지원한 쌀과 식료품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다(사회적 거리 두기로 한 줄로 서있음).



우주가 완성되는 그 목표를 향하여 그렇게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는 수도공동체 본연의 삶으로 우리가 증거하는 하느님 나라의 이 세상 모습입니다.

이 시대가 요청하는 이 대안적 삶을 우리는 어떻게 증거할 것인지 이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특히 다른 문화 안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해외 선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설립자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토론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에게 돈으로 다가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 가운데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좋은 것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현대 사회와 수도 생활 18쪽)

그리고 설립자 신부님과 같은 파리 외방전교회에 소속된 나성도 신부님은, “선교사에게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만큼 예수님의 모습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기쁨과 희망 25 2020년 여름).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복음 선포는, 가르치고 베푸는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생명이라는 한 그물망으로 연결된 공존하는 존재들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표는 완전한 공유 사회(사도행전 2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해외 파견지에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녀님들, 수도회 총회 이후에 갖게 될 해외 지구 회의에서 이 주제를 열렬하게 토론하고 실행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이 공유, 공생의 삶을 더 깊이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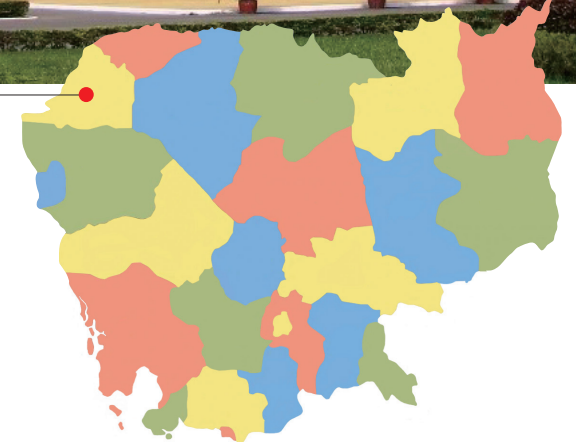


02 락다운 동안 모든 교통수단이 중단되었는데 바랑가이(동사무소) 소속의 교통담당 직원들이 후원물품을 운반할 수 있도록 차량 제공과 만일을 대비해 일어날 수 있는 일(락다운 동안 먹거리가 없어 굶주리고 있는 상태로 한꺼번에 몰려들 수 있음)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었다.



캄보디아 Cambodia

점나옴



공식 명칭 : 캄보디아 왕국
위치 :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반도 남서부
수도 : 프놈펜
인구 : 16,486,542명(2020년 추계)
기후 : 열대몬순기후
언어 : 크메르어, 프랑스어, 영어
종교 : 소승불교(95%),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 등
정치 · 의회형태 : 입헌군주제, 양원제



01 본음독 물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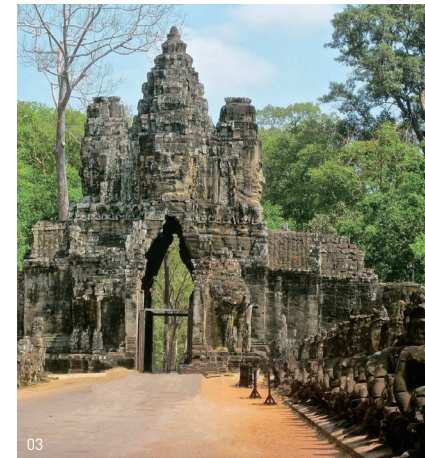
캄보디아는 북쪽으로 태국, 라오스, 동쪽과 남쪽으로 베트남, 서쪽으로 캄보디아만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인도차이나반도에 자리 잡고 있다. 서쪽 해안을 따라 태국만이 만나는 곳에는 충적토(흙과 모래가 떠내려 와 쌓인 평지)가 넓게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주변은 산과 동쪽의 메콩강으로 둘러싸여 있다. 평야의 중심에는 메콩이 만들어낸 수자원이 풍부한 톤레삽 호수가 있다.

BC 2000-1000년에 캄보디아의 신석기인들이 크메르 문명을 발전시켰다. 9세기 초에 성립된 크메르 제국은 앙코르와트의 사원을 세운 12세기에 전성기를 맞았으나 15세기

02 앙코르와트



이후에는 정치적·사회적인 쇠퇴기를 보냈다. 1864년 프랑스의 보호국이 되어 정치적인 안정이 회복되었으며, 195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했고 시아누크 정부가 집권했으나 1975년 크메르루즈에 의해 무너졌다. 1969년-1979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농경 유토피아 건설'을 내세운 크메르루즈의 학살과 기아, 미군의 폭격으로 최대 170만 명이 사망한 사건인 킬링 필드는 '죽음의 들판'을 뜻한다. 당시 캄보디아는 초대 수상인 노로돔 시아누크의 철권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긴 미국이 폴 포트를 필두로 시아누크를 쫓아내고 정권을 잡게 했다. 폴 포트는 집권 후 바로 나라를 '개조'하는 데에 몰두했고, 권력을 가진 크메르루즈는 지식인과 성직자를 포함한 대규모 숙청을 자행했다. 이로 인한 희생자는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최소 15만 명에서 최대 170만 명까지 수치가 다양하며 170만 명의 경우 당시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이후 세워진 정부 하에서도 파벌 간에 전투가 계속되다가 UN의 보호 하에 1993년 자유선거를 실시해 시아누크가 복귀해 연립정부를 이끌게 되었다.



03 앙코르톰

04 톤레삽 호수

05 킬링필드 추모공원



캄보디아의 음식은 태국, 라오스, 베트남 등 주변국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가 형성되었다. 프놈펜과 씨엠립의 음식점의 증가는 중국과 베트남 음식을 즐길 수 있게끔 되었고, 쌀이 주재료이며, Battambang Region은 전통 밥그릇이다. 대부분의 캄보디아 음식은 ‘츠 낭크띠’라는 중국식 요리용 팬으로 요리를 한다. 캄보디아식 페라나칸 요리인 아묵, 볶음 고기인 록락, 쌀국수인 꾸이띠우, 캄보디아식 부침개 반차에우, 바나나 떡인 뇨언썸앙이 있다. 또한 두렌, 망고, 파파야, 오렌지, 망고스틴, 람부탄 등 열대과일이 풍부하다.

기후는 강수량이 많지만 우기에 집중되어 있다. 날씨는 건기엔 건조하며 덥고 우기엔 습하며 더운 열대기후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다만 연교차는 좀 있는 편으로 1월 즈음엔 25℃ 정도로 따뜻한 날씨를 띄지만 3월부터 더워져 40℃ 가까이 올라가고 5월부터는 비가 차츰 오기 시작하는데 만약 우기가 늦게 시작하면 관개시설이 부실한 연유로 헬 게이트가 열린다. 우기는 9~10월쯤 정점을 찍고 난 후부터 기온도 내려가고 비도 덜 내린다.



06 꾸이띠우 07 뇨언썸앙 08 록락 09 반차에우 10 아묵 11 씨엠립 마을 학교



12 축복식
13 시스폰 성당 소속 기숙사 학생들에게
한국에서 보내 준 후원 물품 나누면서
14 시스폰학교 축복식



고대 시대로부터 캄보디아는 인도로부터 힌두교와 불교를 받아들였다. 힌두교가 보다 폭넓게 퍼져, 앙코르 사원에서는 대부분의 유적이 힌두 양식을 보이고 있고, 불교 양식 또한 같이 혼재되어 남아있다. 불교는 처음 소개된 13세기 때는 대승불교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소승불교로 자리매김하였다. 동남아시아 최강의 문화를 꽃피웠던 크메르 왕조의 역사가 깃든 캄보디아는 1975-1979년까지 폴 포트의 아픈 근대 역사를 지닌 채, ‘앙코르 제국’의 부활을 희망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가톨릭 역사는 약 500년이 되었지만 인구의 약 0.2%만이 가톨릭 신자다. 바탐방 교구는 인구 500만 명에 가톨릭 신자 수가 약 6000명이다. 약 0.1%가 조금 넘는 것이다. 크메르 루즈군을 이끌던 폴 포트가 지배한 시기에 많은 신자들이 희생되었고 특별히 사제와 수도자들은 처형되거나 추방되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시기를 짊어온 마을도 고스란히 겪어야 했다.

캄보디아에는 우리나라의 설날과 비슷하게 새해를 기념하는 명절인 ‘졸츠남’이 있다. ‘새로운 해(츠남)로 들어가다(졸)’라는 뜻으로 새해, 신년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 ‘프춤번’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명절로, 이 기간에는 친지들이 모여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사원을 방문해 가족의 평온과 안녕을 기원하며, 음력 8월 16일부터 그믐날까지



15 여름신앙학교 16 입교



15일간 진행된다. 이 시기는 보름달이 떴다가 조금씩 어두워지는 시기인데, 새벽 4시경에, 절 바닥에 주먹밥을 뿌리는 ‘버 바이 번’ 의식을 치르는데 이는 지옥에서 1년 내내 굶은 조상님들께 밥을 드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 ‘본옴퓌’는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로, 음력 10월 보름달이 차오르는 때를 기점으로 메콩강에서 톤레삽강으로 흐르던 물이 역류하여 바다로 되돌아가는 시기에 열리는 물 축제이다. 자야바르만 7세가 참죽(지금의 베트남)과 치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서 유래되었으며, 축제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축제를 즐기기 위해 프놈펜 강변으로 모여들며,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보트 경주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야외 공연과 불꽃놀이 등이 펼쳐진다.



17 첫영성체

양국의 외교 관계는 대한민국이 1970년 친 서방 성향의 크메르 공화국과 수교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공산정권이 수립되면서 1975년에 단교하였는데 공교롭게도 크메르 공화국이 그 해 북한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음에 따라 당시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 중에서는 라오스, 베트남 등과 함께 북한 단독 수교국가로 분류되기도 했다. 그러나 1997년에 대한민국과 재 수교하였다.

캄보디아 문화는 과거의 풍부한 유산, 특히 앙코르 사원에서 볼 수 있는 앙코르 시대의 건축과 조각을 통해 전해 내려왔다. 씨엠립은 앙코르 왕국의 근거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곳이다. 씨암(Siam)은 태국을 일컫는 말인데, 씨엠립의 자세한 의미는 ‘태국에 의하여 점령된 곳’이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다. 600km에 이르는 지역 내에 모두 9세기에서 13세기에 이르는 100여 개의 사원이 발견되었다.

앙코르와트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반영해 서쪽을 향하고 천문대 역할을 했던 사원이다. 웅장, 화려하면서도 신비스러우며 앙코르 왕국의 아쇼바르만 1세(889-900)의 시기에 건립되었다. 1858년 프랑스의 자연학자 헨리 모호가 밀림에 가려져 있는 사원을 처음 발견하였고, 12세기 전반에 수리아바르만 2세가 건립하고, 힌두교의 비슈누 신과 일체화한 자신의 묘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원을 건립하였다. 힌두교



18 매주 토요일 성모 회원 모임

의 신들과 그 대리인인 왕에게 바쳐진 막대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건축물 하나하나에는 크메르인들의 독자적인 문화와 그들의 우주관 및 신앙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양코르 문화의 절정인 양코르토크는 양코르와트와 함께 양코르 문화의 쌍벽을 이루는 곳이다. 한 변이 3km의 정사각형 모양인 양코르토크는 높이 8m의 붉은 흙인 라테라이트 성벽과 너비 약 100m의 수로로 둘러싸여 있다. 양코르토크와 중앙 사원인 바이온은 크메르왕조가 붕괴되기 직전인 1,200년 자야바르만 7세에 의해 지워진 캄보디아 사원 중 최후이며 바로크 양식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인구 100만의 사방 10km²로 뻗어가던 도시였으나 현재는 돌로 만든 기념비 뿐이고, 상흔을 남겨주고 있다. 이곳에는 미소를 띠고 눈을 감고 있는 자야바르만 부처와 남쪽 문의 돌 거인상, 나가, 코끼리의 테라스, 레퍼



19 방문 진료가면서

와 사원, 첫 번째 복도 내부의 양각 조각 등이 있다. 우주와 왕국을 표상하는 거대한 건축물의 배열이 양코르토크를 잘 나타내고 있다. 바이온 사원에서 동서와 남북으로 뚫린 두 개의 도로에 의해 도시가 4등분된다. 양코르토크의 북쪽에는 왕궁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중앙의 수로에 걸쳐서 바이온 사원이 건립되었다. 북대문, 서대문, 남대문을 갖추고 동쪽에는 승리의 문과 사자의 문이 있다. 왕궁의 왼편에는 피메아니카스 사원과 바푸온 신전이 있고, 그 위쪽으로는 코끼리 테라스가 있다. 당시 이곳을 여행한 중국인에 의하면 도성 입구의 문지기가 죄인과 개는 들어가지 못하게



20 세라피나 수녀 언어실습

21 유치원 야외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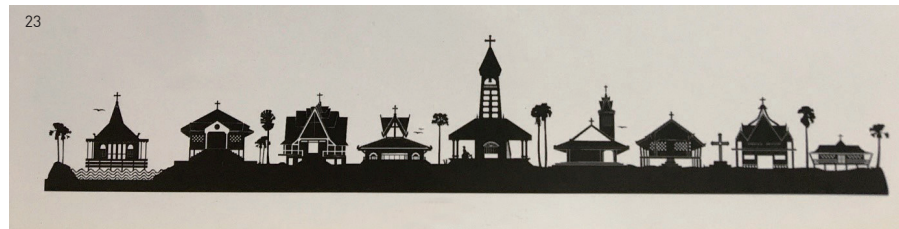


22 봉사온 각 나라 선생님들과 함께 마을진료 마치고

하였다고 한다. 성 안에 기와를 올린 둥근 지붕의 귀족들 집은 동향이고, 왕은 이곳에서 하루에 두 번씩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국사를 처리하였다.

폰레삽 호수는 캄보디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지리적인 경이물 중의 하나이다. 약 6천 년 전, 캄보디아에 지층이 가라앉는 지각 작용이 발생했

23 바탐당교구 성당 모습



을 때 형성되었으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담수호로 국토 면적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캄보디아인들에게 무척 중요한 곳이다. 메콩강은 황토 흙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탁한 황토색을 띤다. 해 질 녘에 물빛이 황금색으로 물들 때 가장 아름다운 광명을 연출한다. 호수는 길이가 160km이고, 너비가 36km에 이른다. 풍부한 민물 어류가 있어 물새나 수생동물, 양서류가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우기가 시작되는 6월 이전까지는 습지에서 고기를 잡는 많은 물새들을 볼 수 있다. 수 세기 동안 이 호수 주변의 사람들은 1km² 당 10톤의 어류를 잡을 수가 있었고, 이는 크메르의 주요 자원으로 공급되었다. 또한 수도 프놈펜과 주요 수로로 이용되었으며, 호수 주변의 다섯 지방과도 통한다. 요즘에는 관광산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프놈펜과 씨엠립 사이에 보트로 여행하는 코스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24 진료소 기공식



성가소비녀회 캄보디아 파견

2014년 4월 28일에 첫 파견되어 5월 1일부터 거주하던 바탐방의 월세집 축복식을 6월 12일에 했습니다. 프놈펜에서 1년간 언어 공부를 마치고 각 지역에 가서 사도직을 염두에 두어 2년간 언어 실습을 하였습니다. 캄보디아에 진출한지 3년이 되는 해인 2017년 4월 말에 우리는 사도직 장소를 결정하기 위한 식별을 시작하면서 식별을 함께 할 사제와 약 1년간의 식별 과정을 통해 바탐방 교구 '찜나옴 마을'을 사도직 활동의 시작 장소로 결정하였습니다. 찜나옴은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바탐방교구 주교와 사제들이 한결같이 우리의 진출을 바랐던 곳이었습니다. 2017년 11월 8일에 찜나옴에 있는 '아기 예수 테레사' 성당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유치원 건물 2층에 마련된 사제관의 방 하나를 내어 주어 3년간 생활하고 있다가 2019년 1월 2일 수녀원과 진료소 기공식을 하고, 1월 4일부터 건축을 시작하여 1월 30일 새 집으로 이사하고, 2020년 2월 19일 축복식을 하였습니다.

25 수녀원 뒷 정원의 성가정상 축복



26 진료소와 수녀원 축복식

“주님께서 집을 아니 지어 주시면 저희의 수고가 헛되리니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시어...” 이렇게 건축 전기도로 시작하여 완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도회 가족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 사랑 속에 집이 완성될 수 있었기에 이 소식을 빌어 감사 인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보 나눔 재단과 후원 모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시작부터 마침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손수 지어주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요즘은 건축 후 드리는 감사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기쁨으로 해산의 고통을 잊고 기쁨으로 충만한 여인의 마음이 이런 것일까?” 성체를 모신 첫날 경당에서 기도를 하며 밀려오는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도회 모든 가족들이 떠올랐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안정되고 평온한 마음이 사로잡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좀 더 열악하고 안정되지 않은 어딘가로 떠나



27



28

27 수녀원 축복식날
28 수녀원 경당

야 할 때가 지금인 것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는 “늘 가난하고 불안정한 곳을 향해 나와 함께 떠나자”라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여겨지면서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도직현황

그레이스 수녀는 2018년부터 꾀나옴 마을에서 방문간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뜨거운 정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가정들을 속속들이 파악해 가면서 필요한 의료 처치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환자를 타 병원에 의뢰하고 있고, 자동차가 생긴 후부터는 직접 이송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바탐방 주교좌성당 내 보건소로 의뢰하여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타 병원의 진료를 받게 하고,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1년이 넘게 그곳 보건소에서 일했던 덕분에 어떤 환자를 데려가든지 그곳에서는 늘 우대고객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겠지만, 여기 의료수준은 한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한국이 의료부분에서 얼마나 선진국(?)인지 이곳에서 살다 보면 누구나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의료보험 자체가 없거나 프놈펜에 있는 몇 개의 고급 종합병원은 그야말로 재벌들이나 갈수 있는 병원이라서 선교사들은 차라리 태국행을 선택합니다.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은 없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올마이키즈와 연결하여 장학 사업을 해오고 있고, 현재 장학대상자는 60명입니다. 2020년 2월 19일 진료소 축복식 이후부터는 방문간호를 겸한 진료소 운영을



29

29 진료소 첫 환자

하고 있습니다.

세라피나 수녀는 프놈펜에 2018년 10월 4일에 파견되어 1년간 언어 공부를 마친 후 3개월은 빠일린에서, 3개월은 바탐방 교구청 내에 있는 보건소에서 언어 실습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뚝뚝 성당 내에 기거하면서 본인의 사도직을 염두에 두고 계속 언어 실습 중입니다.

마리아콜베 수녀는 성당에 있는 교구 소속 데레사 유치원의 책임자로 현지 교사들을 책임자로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으며, 미사 전례, 교리교육, 복사단 등 성당 관련 활동, 방과 후 교실 운영, 도서관 운영을 맡아서 해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성가소비녀회를 캄보디아에 불러주시고,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저희는 매일 새날에 주님의 초대와 축복을 받으며 성가소비녀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 주십시오.”

캄보디아 쯔나옴
박 세라피나 수녀



캄보디아에 온 지 벌써 2년이 되었다. 어설프기만 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것보다 훨씬 많이 편안해진 나를 발견한다. 시엠립 공항에 도착해서 현지 비자를 받기 위해 어리바리하게 두리번거리는 나를 제일 먼저 안심시켜 주었던 사람은 공항에서 안내를 하는 현지인이었다. 그때가 바로 한국은 추석 명절이 지난 뒤 며칠 되었는데 환하게 웃는 얼굴로 “한국은 명절 휴가가 며칠이었느냐?”라고 물었다. 이는 꼭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리바리한 나를 배려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마음이 편안해졌다. 시엠립에서 하루 밤을 지내고 아침 일찍 공동체로 출발했는데 작은 차에 기사까지 무려 7명이 타고 있는 것이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시골 풍경이 정겹기보다는 약간의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익숙한 풍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이론과 현실을 접목해 가야 하는 실제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언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가 1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3개월은 공동체에서 같이 지냈다. 이웃 안에서 사랑을 헌신적으로 실천하고 가난하게 사시는 본당 신부님과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초석을 닦은 두 수녀님과 같이 생활했던 그 기간은 내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었음을 순간순간 느끼면서 감사하는 마음이다.



01 착한 할머니

02 캄보디아 시엠립 공항도착

3일째 되는 날 수녀님을 따라 마을 방문을 가서 인사드렸을 때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봉스라이가 크마에어를 빨리 배워 내 얘기를 많이 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다. 이는 언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해 주는 첫 관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지금도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그분에게 감사한다.

언어 공부를 위해서 프놈펜에서 떨어져 지내는 동안 때로는 두려울 정도로 고독감이 밀려오기도 했고, 어느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현실이 무거웠던 적도 많았다. 그리고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나의 한계에 부딪치면서 과연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하였다. 어느 때는 그 질문조차 버거워 피하고 싶었고, 나 자신과

대면하고 싶지 않아 일부러 회피한 적도 많았지만 항상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지쳐 돌아온 아들을 안아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였다. 제가 무엇이기에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까? 다시 그 앞에 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지낼 때 어쩔 수 없이 공동체로 합류해야 하는 상황들이 방황하는 나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기회였다는 것을 알았다. 프놈펜에서 지내는 동안 두 수녀님은 집을 짓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온갖 고생을 하고 있어서 많이 미안했다. 소임을 하면서 집을 짓는 수녀님들의 바쁜 일정과 그들의 수고로 훌륭한 보금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들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접할 수 있는 관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들과의 만남 이전에 나 자신과의 만남을 할 수 있는 절실한 기회이기도 하다.

어느 날 학교에 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려고 걸어가고 있었다. 이곳은 대중교통이 없어서 오토바이 기사가 운전하고 승객이 뒤에 타는 ‘모토 뚝’을 이용하는데 학



03 뽕당 지역 방문

교까지 데려다주던 기사님이 오지 않아 기사님에게 해야 할 말을 연습하면서 골목을 걸어가는데 매일 함께 했던 기사님이 아닌 다른 오토바이가 지나가자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마침 그도 뒤를 돌아보는 것이었다. 손짓으로 탈 것이냐고 물었고, 학교의 위치를 알려 주면서 갈 수 있느냐고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저으면서 멈칫거렸다. 늦기도 했고, 시간대가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이었기에 망설이나 싶었기에 그럼에도 학교 가는 길을 알고 있다고 했더니 태워주었다. 학교에 도착해서 그는 손짓으로 소통을 하였다. 알고 보니 청각장애가 있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때 마음 깊이 다가 온 것은 언어 공부로 고심을 하고 있는 나를 안심시켜 주는 듯했고, 말이 아닌 다른 방법

으로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이렇게 조금씩 배워 가는 것이다. 비울 것도 없이 가난하기 그지없는 나의 처지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분은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한다.

시간과 언어가 반비례라도 하는 듯 답답함을 느끼고 있던 어느 날 ‘글씨가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 또한 언어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주시려는 주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아도 알 수 없는 그림 같은 글씨를 써 보고 싶고, 읽어 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 주신 것은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다.

언어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배워가고 그들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다. 그러나 가끔 급하게 재촉하는 나에게 답은 없었다. 끊임없이 천천히 가는 것이 답이었다. 어느 것 한 가지 마음대로, 계획대로 할 수 없음을 매 순간 고백하곤 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셨음에 감사할 뿐이다. 배워 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하고, 깨닫게 되면서 나 자신과 만남을 통해 그들의 삶 안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바탐방 교구 안에 있는 진료소에서 언어 실습을 하고 있다. 언어 실습과

사도직 탐색을 위한 계획을 세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계획을 계속 수정하고 있다. 가려고 했던 장소는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생활의 전반적인 것들이 제한되는 과정에서 언어 실습 또한 제한을 받아야 했다. 이곳의 진료소는 프랑스 국적을 가진 수녀 의사 ‘앗’의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을 바탕으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다.

수녀님은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았으며, 지금은 주님 품으로 떠났지만 남아 있는 진료소 안에는 그분의 체취가 느껴진다. 가끔 오랜만에 온 환자는 그분을 찾고 그리워한다. 나는 이곳에서 설립자 신부님이 한국 땅에 오셔서 함께 했던,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 가신 신부님의 유산을 다시 생각하고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병원은 아니지만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하는 이곳은 성가복지병원을 떠오르게 했다. 약을 받으면서 약 값을 물어보는데, 진료소에 마련된 작은 통에 약간의 돈을 넣기도 하고, 그마저 없는 사람은 그냥 가지만 이것은 더 많은 나눔을 위한 참여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들이 내는 돈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에 돈을 넣는 과부의 헌금을 눈여겨 보셨듯이 이곳 또한 마찬가지다. 나누려는 그들의 마음이 고맙다.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닐 때면 성 신부님이 낡은 자전거로 여기저기 다니시던 모

습이 떠올라 마치 신부님이 앞서가시면 나는 놓칠새라 눈을 떼지 않고 따라가는 모습을 상상하곤 한다. 신부님이 주신, 그리고 신부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 결코 다른 길로 접어들 수가 없다는 것을 마음에 다짐한다. 가난한 이웃을 찾아가는 것은 도와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나 또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 주어야 함을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것이다.

성당에 매일 놀러 오는 티어리(가명)는 많이 커 버린 동생을 안고 온다. 성당 마당에는 또래 아이들이 끼리끼리 놀고 있지만 티어리는 멀리서 동생을 안고 서서는 물끄러미 바라보곤 한다. 언젠가 애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아빠와 엄마는 멀리 일하러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데, 부모님은 멀리 있어서 가끔 한 번씩 온다고 한다. 어린아이에게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이 마음 아프고 안쓰러운데 일상의 그 질문부터 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했다. 티어리는 항상 조그만 도시락 같은 것을 들고 다니는데 그곳에 어딘가에서 남은 음식을 주면 담아 집에 가서 식구들과 같이 나누어 먹는다고 한다.

어느 날 티어리와 어떤 부인이 아기를 안고 오는데 아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에는 눈물 자국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 부인은 엄마였으며, “왜 우느냐?”라는

어리석은 질문에 머뭇거리면서 하는 말이 아이가 엄마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뵘씨! 어쩌다 한 번 오는 엄마를 기억할 리 만무한데…. 엄마는 한 번이라도 안아보고 싶었는데 아이가 낯설어하는 모습에 마음이 싸하고 얼마나 아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다시 일하러 가고, 티어리는 여전히 성당에 같은 모습으로 오지만 만날 때마다 환한 웃음으로 대답해 준다. 아이를 잠깐 데리고 놀아 주면서 친구들과 놀다 오라고 했더니 좋아라 한다. 티어리와 동생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틈나는 대로 방문을 하거나 성당에 오면 함께 놀아 주기도 하면서 지내고 있다.

썸남에는 엄마와 아들 둘이 함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동네 건달이 기습을 해서 위험한 상황이 될 뻔하였으며 그 일로 두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 주고 싶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어 난감한 상황으로 지내고 있는 어느 날 앞집 할머니께서 방문하셨다.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저녁에 잘 때만 아래층에서 지낼 수 있도록 부탁을 했다. 순간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허락해 주셨다. 평소에도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기에 한국의 어느 인자한 할머니의 인상을 떠오르게 하였다. 그레이스 수녀님과 함께 연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썸남에 갈 때면 할머니 댁에 들러서 인사를 나

누기도 했다. 마치 보호자가 된 듯한 느낌으로 말이다.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할머니를 통해서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해주셨다. 당신께서 손수 돌보고 계심을 믿으면서 의탁하고 기도한다.

하루하루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순간에, 그리고 초대하시는 순간에 충실하려고 노력한다. 주님께서 나를 빈들로 불러내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을, 그 빈들을 당신의 계획대로 꾸미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한다. 어쩌면 이것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지? 잘 가고 있는 지? 왜 이곳에 불러 주셨는지?”에 대한 답을 주신다고 믿는다. 그동안 익숙했던 나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 생면부지의 이곳에 송두리째 들어 다 놓으셨다는 것을 고백한다. 그 안에서 다만 도구로 쓰일 뿐이며, 그분과 함께 그림을 그려가고, 그 위에 그분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초대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어느 때는 아이들과 때로는 환자들과 만나서 그들과 같이 있게 하시고, 어느 때는 방문을 통해 대화하게 하는 등 당신의 계획대로 나를 초대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에 순응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두렵게 느껴졌던 이곳의 생활이 차츰 내 안에 편안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조금씩

적응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때론 한국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밖에 있는 열대나무들을 보면서 “아, 캄보디아구나!” 하는 현실로 돌아온다. 이 또한 조금씩 적응해 가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언어 실습과 사도직 탐색을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설립자 신부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길을 걷기 위한 선택이었다. 더 가난한 곳으로, 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빈들로 초대하시고 그림을 그려 채우시는 그분의 계획대로 순간순간 순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걷는 것이다. 기도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 주십시오.”

04 꼬임 할머니 가족과 함께





찜나옴 성당 교우들의 결혼식

캄보디아 찜나옴
이 마리아콜베 수녀

캄보디아 선교 소임을 시작하면서 처음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다. 그 몇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결혼식 문화와 장례 문화였다. 이 예식에 직접 참여해 보기 이전에 귀로 받은 충격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그것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생기면 온 마을에 울리는 엄청난 음악 소리를 며칠씩 견뎌야 하는 부분이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낮에도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온 집안으로 울려대는 이 소리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두근거리던 기억이 생생하다.

캄보디아에는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집에서 모든 예식을 치른다(최근 몇 년 전부터 프놈펜에서는 결혼식장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보통 결혼식과 장례식이 2박 3일, 혹은 3박 4일 동안 진행되고 이 기간은 음향기기 담당자들이 집에 머물면서 예식과 관련된 내용을 마이크를 온 마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마을 곳곳에 세워져 있는 스피커를 통해 멀리 있어도 예식을 들을 수 있고, 신나게 춤을 추거나 슬프게 우는 곡소리를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마을에 살면서 그동안 내가 본 교우들의 결혼 예식에 대해 소개를 해보려 한다.

찜나옴 성당 교우들의 결혼예식

캄보디아 바탐방 교구의 찜나옴(성녀 아기예수테레사 성당)은 캄보디아에서 보기 드문 교우촌이 형성된 마을로 프랑스 신부님들이 터를 닦아 약 백 년 정도의 역사를 지닌 캄보디아 가톨릭교회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성당을 주변으로 약 100가구의 교우촌이 형성되어 있다. 예전에는 넓은 지역의 논농사를 짓고 있어



서 추수철이 되면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한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한 곳이었다고 하는데 기계수확이 시작되고,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빚을 진 교우들이 농토를 저당 잡히면서 현재 찜나옴 교우들은 빚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태국이나 도시로 일을 하러 가는데 이들이 꼭 고향으로, 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돌아오는 때가 있는데, ‘쫄츠남’이라고 부르는 약 2주간의 캄보디아 새해 연휴, ‘뽕춤 번’이라고 부르는 약 1주간의 위령제 기간, 그리고 결혼식 때이다. 태국에 간 젊은 교우들은 결혼식을 앞두고 어떤 이들은 3개월 전에 찜나옴으로 돌아와 혼인미사 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결혼식 준비를 한다. 교우끼리 결혼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 교육을 받고 교우들에게 정식으로 공지

한 이후, 주로 토요일 오후에 성당에서 혼인미사를 올린다. 혼인미사가 끝나고 나면(보통 혼인 예식은 신부 가정에서 치러지며, 결혼식 관련 비용은 신랑 측에서 마련한다), 첫날 저녁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먹는 음식으로 준비하여 마을 사람들이 부담 없이 가서 식사를 한다. 그리고 어김없이 댄스파티가 밤 11시까지 이어진다. 이튿날 이른 아침부터 캄보디아식 혼인예식을 치르는데 시간대 별로 해야 하는 예식들이 있어서 많은 교우들이 주일미사를 꺾하게 된다. 처음 얼마간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다. 다행인 것은 점차적으로 예식을 평일로 하는 가정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침 예식이 중요한 것은 ‘종다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서약 및 결혼반지 교환 예식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결혼식에는 신부 신랑만 치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를 비롯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복을 갖추고 화장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가오는 혼례 예식은 일생에 단 한 번 화려하게 차려입고, 서너 번 옷을 갈아입고, 카메라와 사람들 앞에서 서게 되는 잊을 수 없는 날인 것이다.

예식이 다 끝나면 점심 만찬이 시작되는데, 이 경우는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갈 수 있다. 이때 음식 전문 업체에서 준비한 값비싼 음식으로 한 상이 차려지고 상 하나당 10명의 사람들이 앉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초대장에 끼어있는 봉투에 적

어도 얼마간의 돈을 넣은 이들이다. 약 15달러 정도 넣는다고 한다. 그리고 음식과 음료를 마음껏 먹고 즐길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혼 축하금을 받은 신랑 신부는 결혼식 대행업체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약간의 여유분의 돈이 생길 수도 혹은 부족(?)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기대했던 만큼의 하객들이 오지 않으면, 예를 들어 비가 오거나 어떤 상황들이 생겨서 하객들이 오지 않으면, 신랑과 신부는 맞춰둔 음식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간혹 결혼비용을 다 준비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커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곳의 젊은이들은 최소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에 이르는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결혼하기에 대부분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3일 행복하고 30년 불행하다’는 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빚을 지면 이 돈을 갚을 때 거의 사채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젊은 부부들은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빚에 허덕이게 되기도 한다.

점심 만찬에 초대했던 하객들이 와서 식사를 하면 오후 내내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를 하면서 결혼식은 무르익어간다. 그리고 밤이 오면 어김없이 댄스파티가 자정까지 이어진다.

여기서 보게 된 보통의 가정들은 이런 식

으로 2박 3일, 3박 4일로 결혼식을 마친다. 그리고 신혼여행은 없다. 결혼식이 끝나면 화려했던 모든 치장들은 사라지고, 곧장 일상으로 돌아간다. 신부 집에서 신랑이 살게 되는 경우가 보통이며 곧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1년 정도 살다가 태국에 일자리를 찾아 갓난아이를 부모님 집에 남겨놓고 부부는 국경을 넘어간다. 1년에 두 번, 쫓겨남과 뽀춤 번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집

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밤 새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즐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마을에 코로나가 생긴 이후, 올해는 이런 풍정이 많이 사라져 버렸다. 태국 국경이 막히면서 국경을 넘어올 수 없게 된 것과 일자리 환경이 달라지면서 많은 교우 가정들은 이전에 누리던 약간의 경제적 도움마저도 거의 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올해 쫓겨남은 조용하게 시작하고 조용히 끝이 났다.



코로나19로 멈춘 것들...

중국 분양
권 벨리나 수녀

2020년은 지구의 모든 생명들에게 특별한 해이며 특히 분주하고 욕망이 끝이 없는 인간들에게는 더욱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약자들이 신음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는지... 다른 한편 코로나로 비행기 이용이 줄면서 하늘의 공기가 깨끗해졌고, 강물들이 맑아졌으며,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갖고 있다는 소식들도 들려오곤 한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 생애에 항공기가 멈춰버린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간헐 지낼 것이라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는 곧 현실로 다가왔으며, 그것도 눈으로 확인조차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세균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멈춰버렸다. 올해 초에 피정과 연수 그리고 휴가차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코로

나로 인해 출국이 막혀 중국의 소임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9개월 넘게 한국에 머물게 되었다. 이 시간들이 하느님의 뜻은 아닐지언정 그분께서 허락하셨으니 그 안에서 주어진 뜻을 뒤돌아보게 되었다.

2월 말 중국으로 돌아가는 항공편이 취소되어 3~4월은 충원에 머물면서 수도회 총회 나눔에 충실하고 내면화하는 시간 속에서 중국행 비행기가 뜨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덕분에 총회의 흐름과 총회 여정을 더욱더 체감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총회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에 있어서도 시야가 넓어지게 되었다. 또한 충원에서의 여러 상황들을 바로바로 공동체 수녀님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 한편 총회 나눔을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어 중국 채팅 위챗으로 화상 채팅을 시행하였는데, 같이 모여서 대면으로 하는 나눔보다는 못하지만 나름 괜찮았으며 생각보다 순조롭게 공동체와 나눔을 할 수 있었다.





01 총원 정원에서 02 경기도 연천 단호박 씨앗 심기

원래 6월 말에 총원에서 계획되었던 아시아 지구 회의가 취소되면서 6월 중순에 총원 사무국에서 제안한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였다. 직접 얼굴을 보면 더 좋았겠지만 화상으로라도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중국에서 선교하는 수녀님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4개 나라에서 선교하는 수녀님들은 모두 20명이었으며 처음 시험 삼아 화상 연결을 통해 얼굴을 보게 되니까 마냥 반가워 흥분된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회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나중에 모두 고백하곤 하였다. 그런데 두 번째 실제 회의를 할 때는 수녀님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진지하게 회의의 모드로 들어갈 수 있었다. 중국 공동

체는 처음으로 세 나라의 수녀님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각 공동체의 나눔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더욱더 성

03 도창동 농장 포도 따기



가소비녀회의 한 회원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였고, 풍요로움과 넓은 시야를 갖게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다. 해외 선교 아시아 지구에 속한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중국의 수녀님들과 많은 나눔을 통해 공유와 연대를 기대하며, 하느님께서 아파하고 함께 하시는 그곳에 소비녀들이 기쁘게 응답하기를 희망해 본다.

5월 달은 총원의 수녀님들과 함께 특별한 성모의 달을 보내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총원 공동체는 우주를 돌보시는 성모님과 함께 이 시대 아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실천 사항을 알아보던 중에 코로나로 인해 농촌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어 ‘농촌 일손 돕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의정부관구 니꼬데모 수녀님의 소개로 연천에 있는 의정부교구 가톨릭농민회 소속인 농가에 가서 봉사하게 되었는데, 농촌이 고향이라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다녀오게 되었다. 주로 단 호박 심기, 고추 모종 심기, 망 썬우기, 블루베리밭의 풀매는 작업을 하였는데, 수녀님들이 워낙 일을 척척 잘하기도 했지만 농가 담당자들에 의하면 “수녀님들이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힘이 되고 에너지를 받는다”고 하였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실제적이고 다방면으로 필요한 곳에 다가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된 좋은 기회가 되었다.

7월 초 예정이던 항공편이 다시 취소되면서 볼리비아로 출국하지 못하는 아드리아나 수녀님과 요한세례자 수녀님과 도창동 농장에서 봉사하기로 하였다. 수도회의 배려로 7월부터 9월까지 자연 안에서 도창동 공동체 수녀님들과 함께 선물로 주어진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다. 농장 소임은 언젠가는 한번 꼭 해보고 싶었고, 외국인 회원들이 총원 소속으로 되면서 관구 수녀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었기에 도창동 공동체와 지냈던 3개월 동안은 더없이 행복하였다. 간절히 원하면 언젠가는 들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늘 자연과 함께 하기에 개방되고 열린 마음을 지닌 수녀님들은 우리들을 배려해 주어 첫날부터 내 집처럼 편한 마음으로 주어진 소임을 할 수 있었다.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얼마 지나지 않아 주방 도우미로 투입되면서 문 소피아바라 수녀님과 함께 음식 준비를 하게 되었다. 수녀님과 둘이서 주방에서 정성을 다해 맛난 음식을 준비하면 밖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수녀님들이 기쁘게 드시고, 힘내서 밖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으로 기쁘고 신나게 음식을 장

만하였다. 또한 “일은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수녀님은 늘 그날의 메뉴를 알려주며 괜찮겠는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 등의 의견을 묻곤 하였다. 전체적인 메뉴의 흐름을 서로 파악하고 있으니 아주 쉽게 맞추어 가면서 음식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포도 농장에 있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이 새벽에, 오전 9시와 12시에 오후 3시와 5시에 일꾼을 구하러 나갔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수시로 일꾼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끼리 농담으로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은 제일 힘든 일인 포도밭에 약 치는 작업을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웃음을 나누곤 하였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행복한 시간은 저녁 기도 후 강아지들을 데리고 논밭 사이로 산책하는 것이었다. 처음에 갔을 때 복순이는 새끼 두 마리를 낳은 후라 보는 사람마다 사납게 짖어댔다. 그러다가 새끼들이 조금씩 크면서 많이 순해졌는데, 시간 되는 대로 복순이와 새끼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이 동물들을 보면서 모성은 사람과 동물이 구분 없이 무조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19로 중국 출국이 막혀 소임지가 아닌 곳에 머물게 되었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고, 체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자신들의 역사를 해석하고, 야훼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이 겪고 있고, 체험했던 시간들에 대한 바른 해석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금인 것 같다. 코로나로 인해 나 자신이, 우리 수도회가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깨달아 그 깊은 뜻을 알아듣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도한다.



조선인 속의 소비녀

중국 연길 연변호스피스병원
이 스테파노 수녀

01 밖에서 환자들과 이야기하며





02

02 간식을 드리며

“한국에서 왔을까?”

“네, 한국에서 왔습니다.” 나를 보면 꼭 묻는다.

내가 말하는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 인사를 할 때마다 같은 모습, 같은 문자를 쓰면서도 조선족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말이다.

누군가 말했다. 세월은 나이대로 가고 있다고. 10대는 10km로, 20대는 20km로 가고 있다고, 그렇다면 다가오는 나의 60대는 60km로 달리는 것이라고.

중국에서 선교사로 2002년에 처음 발을 내디뎠고, 이곳에서만 15년 넘게 지내왔는데 그야말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특히 올해는 같은 중국이지만 연길이라는 새로운 곳으로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지나온 10개월이 그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다. 중국 선교지의 사정상 일년에 한 번 씩 한국에 가서 피정과 휴가를 하게 되는 기다림이 있기에 또다시 낯선 곳, 낯선 사람, 낯선 일을 하면서 언제 시간의 지나가나 하던 것이 그저 헛된 것이었음을 느끼게 된다.

연변호스피스병원은 1층에 요양 시설이 있으며, 2층 호스피스에는 22개 병상의 작은 병원으로, 의사 1명, 간호사 11명, 간병인 5명의 직원과 함께 나는 원목 소임을 하고 있다. 주로 임종을 준비하는 환자들 이 많이 있지만 심장병이나 뇌졸중, 뇌경색으로 입원하여 오랜 기간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도 많다.

거의 대부분 조선족 환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한족인데 주로 암 환자들이 많이 입원하시고 한동안 계시다가 선종하여 소임 온 이래로 벌써 90여 명이 넘게 돌아가셨다. 그나마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몇 개월 동안 환자를 받지 않아서 사망 환자가 적은 편이다.

늘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에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지만 어떠한 위로도 죽음 앞에서는 쉽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환자들도 있지만 대세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신앙에 대한 전교를 금하고 있었기에 이 병원의 이사장이며,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 수사님은 환자들에게 신앙에 대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신 후 가슴이 철렁거린다고 말씀하셨다. 지금까지 신자는 단 두 명이었으며 그

나마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서로가 위로받는다느 느낌이 들었다.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에게는 그냥 곁에서 마음속으로 임종기도를 드리곤 하였는데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리고 나면 곧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다. 사실 이곳에서는 원목이라기보다는 주로 보호자들과 대화를 하거나 환자들을 도와주거나 함께 산책을 하는 것이다. 간혹 간병인들의 일이 많으면 환자 식사나 함께 놀이를 하며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든 언어가 통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소임을 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한족 말은 알아듣지 못하면 다시 되묻고, 비유를 들어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데 조선말을 하는 노인 환자들은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보다 더 외국어로 느껴지기도 한다. 조금 알아듣는가 싶다가도 어느 때는 알아듣기를 포기하고 조선말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해결하기도 한다.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바빠다, 바빠다’라는 말은 아침에 만나는 여러 환자들에게 듣게 되는 말이다. 처음 들었을 때는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빠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이는 ‘아프다. 힘들었다. 고통스럽다’는 뜻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환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지난밤

03 유일한 조선족 수간호사와 함께



03

바뻐어요?”라고 묻게 되었다.

또 하나는 ‘데비지다, 데비다’ 로 ‘버려라 또는 없애라’라는 뜻이다. 이는 어느 환자가 물건을 주면서 내게 한 말인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 한참 동안 어리둥절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조선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 말의 ‘메이쓰(没事)’ 곧 한자를 번역한 것으로 ‘일 없다’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괜찮다. 관계없다. 상관없다.’는 중국어와 같은 뜻이다.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가 전혀 다름으로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대부분 알아듣게 되었다. 그래도 지금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입원하신 환자 중에서 특히 조선족 노인 환자들이나 간혹 보호자들이 한족 말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선족 간호사는 한 명이라 그들과 한족 간호사들 간에 말이 통하지 않을 때면 통역을 의뢰하여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고 있다.

조선족 환자 대부분은 한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으며,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병이 걸려 이곳에 돌아와 입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04 화재 드리기 05 환자 보호자들과 만두 만들기



때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코리아 드림을 꿈꾸었지만 결국은 돈을 좇다가 생명을 잃게 되는 가슴 아픈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젊은 아들이 한국에서 일하다 간암에 걸려 돌아왔는데 간병을 하던 그의 어머니가 나를 붙잡고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고통이 오냐며 오열하였다. 그럴 때는 어떤 말로 위로해야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 드릴 수가 있을까? 많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지만 그냥 편하게 안아주며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사실 병원 소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암이나 폐암에 걸려 임종을 준비하러 입원하게 되는데 모두 열심히 살고자 노력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위로의 말보다는 그분들의 지나온 삶을 들어주고, 조금이나마 편하게 남은 시간만이라도 서로 화해하고,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입원 중에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한국에 있는 자녀들이 올 수가 없었고, 이곳에 있는 친척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어느 환자는 아무도 찾아올 상황이 안 되어 결국 병원에서 임종 환자를 도와주는 직원이 직접 시신을 모시고 화장을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가는 길이 너무 쓸쓸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다.

병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 몸이 아프면 무엇에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에 “이럴 때 신앙에 대해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허락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많은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하느님께서 세상의 고통을 받았던 라자로를 당신 품에 안아주셨던 것처럼 그들도 함께 해 주시리라 믿으며 위안을 받는다.

같은 암이라도 젊은 환자들은 오래지 않아 사망을 하게 되지만 노인 환자들은 오랜 기간 입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친해진 그들로부터 주말을 지내고 오면 내가 없어서 허전했다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가슴 한편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라고 인사하면 서로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병실을 다니면서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어느새 하루를 마무리하게 된다. 무사히 하루를 넘긴 환자들에게 나의 작은 애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하느님의 안배로 또 다른 선교 체험을 하도록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는 것임을 조심스럽게 전해본다. 오늘도 병원 문을 나서면 코끝에 싸한 날씨가 전해지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발걸음은 차분하게 숙소를 향한다.



01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베트남 빈중한글학교
이 기쁨 수녀

2년 전 옆집에 사는 자매님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요양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 시설 등 가능한 많은 곳을 다녀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이라 자매님에게 알아본 후 방문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날, 감사하게도 길을 모르는 우리를 배려해 주어 이웃집 자매님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15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바로 ‘MÁI ẤM NHÂN HẬU’ 마이 엄

년 허우’(‘인자한 쉼터’ 혹은 ‘친절한 보금자리’ 정도로 번역)라는 그리스도의 자선 선교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양원은 단순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모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는 할머니들로 그들의 자녀, 친척 그리고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만 못한 관계로 아픈 상처를 지니고 버림받아 갈 곳 없는 여성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푸끄영교구 미카엘 레반감 신부님이 남편과 자녀 그리고 집도 없어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처음 이 지역에 공동체를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과 가난한 삶을 함께하며 극빈자 중의 극빈자들을 돌보는 켈커타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설립한 ‘사랑의 선교회’의 정신과 영성을 따른 베트남의 방인 수도회 ‘그리스도의 자선 선교 수녀회’의 장상 수녀님에게 신부님이 시설 운영을 제안하면서 비로소 2012년 11월 3일에 세 수녀님이 파견되면서 요양원 문을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방문한 낯선 한국인을 너무도 기쁘게 환대해 주었던 쑤언 책임 수녀님의 활기 참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어르신과 그나마 걷고 움직임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동그랗게 둘러 모여 환영의



02

01 요양원 첫방문
02 요양원 바 언니와 함께

노래를 1절, 2절, 앵콜까지 연이어 불러 주었습니다. 감실이 모셔져 있는 기도 방과 주변을 잠시 둘러보고 쑤언 수녀님에게 매주 한번 봉사를 해도 되겠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오케이 하였고,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지금까지 요양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기 실습 때 밀양 공동체에 있으면서 마을회관에 계신 동네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그때 가끔 귀여운 손자, 손녀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수녀님들과 함께 한글을 배워 서울에 살고 있는 자식들에게 손 편지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시골에 혼자 계시며 쓸쓸함과 지루함을 마을 친구들과 회관에 모여 달래던 할머니들의 하루가 생각되었습니다. 반면 이곳 요양원에 계시는 할머니들에게는 쓸쓸함보다는 ‘쓸쓸함’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한 할머니가 외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03 요양원 수녀님들과 함께 식사
04 요양원 봉사자들과 함께



주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 생기고, 똑똑했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학교도 나왔다고 합니다. 제법 잘나가는 대기업 직장에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번다며 실컷 자식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한참 동안 아들 이야기만 하시기에 “아드님은 지금 어디 살고 있나요?”고 여쭙자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결혼을 했는지, 아이는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모르답니다. 연락이 두절된 자가 이미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순간 당황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더니 조용히 침대에 누우시는 할머니... 그렇게 오지 않는 잠을 힘겹게 청합니다. 꽤심한 아들이라고 생각한 저와는 달리 그럼에도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보고 싶어 하는 어미의 마음이 느껴져 더욱 슬펐습니다.

“사랑은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허리를 굽히고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마더 데레사”

또 다른 할머니는 중부지방에서 살다가 돈을 벌러고 16세에 혼자 이곳까지 내려와 애초에 시집도 안 가고 이곳 요양원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거리에서 채소를 팔다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정하신 할머니는 채소는 어떻게 다듬어야 하는지, 그리고 난생처음 보는 베트남의 다양한 식물들에 대해 이진 무슨 나물, 저진 무슨 이파리인지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얼마 전에 70세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요양원에서 직접 엮을 하였으며, 어렵게 가

족들과 연락이 닿았지만 아무도 조문 오는 사람이 없었다며 주위에서 씁쓸해하셨습니다. 저는 성소자 자매와 함께 향을 피우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처음이자 마지막 조문객이 되었겠지요. 다행스러운 것은 할머니의 생애가 끝날 무렵 이곳 수녀님들의 사랑과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쉼터에 들어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생을 다하셨다는 것은 어쩌면 하느님께서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존엄한 인간을 짐승처럼 죽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어디에 데려다 놓든 그곳이 당신이 있어야 할 장소입니다. -마더 데레사”

현재 이곳에는 5명의 그리스도의 자선 선교 수녀님들과 청원자 자매 1명이 35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매일의 성체조배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심 없는 봉사를 사명으로 두고 있는 수녀님들은 엄청난 노동에도 이른 새벽 4시에 성체조배를 하고 할머니들을 목욕시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식재료 썰기, 설거지, 청소, 배식 등 단순노동에도 공동체에 돌아오면 손목이 아프고 피곤해서 굶아떨어지는 저와는 달리 비교도 할 수 없는 양의



05 요양원 입구

일을 종일 감당해 내시는 수녀님들이 새삼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신기할 만큼 공간이 비는 일이 없지요. 덕분에 요양원 봉사를 마치면 우리 집 공간까지 채워주십니다. 괜찮다고 사양해도 이것저것 나누고 싶은 수녀님들의 마음을 알기에 끝끝내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주느냐보다 얼마나 사랑을 담아서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마더 데레사 수녀님처럼 이곳 수녀님들은 아낌없는 사랑을 저희에게까지 보여주십니다.



06 요양원 할머니들

종종 수녀님들이 주는 음식이 곤란할 때도 있습니다. 특유의 어떤 냄새나 기름에 절어진 고기들이 그것인데 이럴 때는 다른 재료를 더 넣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먹어야 합니다. 베트남 요양원 봉사를 통해 저는 저의 가난함을 더욱 보게 됩니다. 뜨거운 날씨에 밖에서 일하다 보면 금방 지쳐서 때로는 빨리 끝내고 편하게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지고, 같이 식사하자는 수녀님들의 고마운 초대에



07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나신 할머니

도 낮은 음식들을 애써 맛있게 먹을 자신이 없어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일시적인 아닌 꾸준함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봉사를 멈추고 싶지 않은 것은 하느님께서 저의 마음을 이 사람들에게 향하게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연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삶은 저를 아프게 하고 기도하게도 합니다.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갈구는 노인이라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현실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가난일 것입니다. 상처로 얼룩진 어르신들에게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손녀처럼 유쾌함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자선 신교회 수녀님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부서진 영혼들 안에서 같이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저를 부끄럽게 하고 성장시켜주시는 어르신들과 수녀님들과 함께한 시간들 오래오래 소중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체 안에 숨어계심과 같이 불쌍한 사람들 안에 숨어계십니다. 주님을 뵈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곳에 하느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설립자 성재덕 신부

33년의 아르헨티나 한인성당 사도직을 정리하며...

아르헨티나 한인성당
차 클레멘스 수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오 28,19-20)

01 승천대축일 야외미사





02

02 견진자와 함께

복음의 증거를 위해 파견된 아르헨티나 한인 성당 사도직은 1987년 9월에 첫발을 내디딘 초대 수녀님들을 비롯하여 2020년 9월에 정리하고 떠나기까지 만 33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녀들의 기도와 열정이 담긴 곳이다. 성소 감소와 공동체 구성원의 고령화, 교포 2-3 세대로 넘어가면서 청소년 사도직에 있어서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에 의해 2018년 6월에 총장 수녀님 방문 시에 지구 모임에서 이야기가 되었고 내부적으로 사도직을 정리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이후 철수까지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신자들이 자체적으

로 전례를 비롯하여 단체 활동 등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다.

아르헨티나의 한인 성당은 한 곳이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모여 있다. 따라서 서로를 너무 잘 알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가족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교포사회의 문화적 특수성도 있지만, 권위주의적인 풍토가 깊게 자리하고 있기도 하다. 이민 1세대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교포사회 안에서, 성당 안에서 자신들의 소속감을 느끼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당이든 교회이든 어딘가

에 소속감을 두어야 했다. 이민 와서 소속감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가 약하여 여러 상황에 흔들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신자들의 모습은 마치 친목을 위해 성당에 나오는 것 같다. 미사보다 레지오 활동과 신심 단체에 더 몰입되어 있다. 그리고 이민사회는 보수적이라 할 수 있어서 사고의 전환, 즉 새로움과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열린 자세로 신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가가는 것이다. 교포사목은 사제는 물론 수도자들도 이민사회의 특성, 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한다. 대개는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신자들을 대할 때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

이민자들에 대해 안쓰럽게 느껴지는 것은, 때로는 한국인, 때로는 아르헨티나인이라고 하는 이중의 정체성 앞에서 필요에 따라왔다 갔다 하니 이들은 여기저기 속하지 못하는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에 많은 경제활동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현지인과 같은 신분으로 경쟁력 있게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문화적 차별을 받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한인 성당을 정리하면서 떠남과 새로움에 대해 출애굽의 하느님을 묵상하게 되었다. 2020년 9월 20일은 한인 성당 설립 50주년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10여 명만 참여하는 미사로 이루어졌지만, 희년이라는 큰 의미와 더불어 더욱 출애굽의 하느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졌다. 해방의 하

03 성모회



03



04 안나회 어르신들 야유회

느님이 이들을 이끄시어 신자들 스스로 능동적으로 따라가는 자율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계속 떠나고 새로운 만남, 새로운 길,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떠남은 공간적인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도 떠나 하느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움에 우리 자신을 던지는 삶은 하느님을 만나는 길이다. 우리는 물론 신자들에게도 새로움의 시작이다. 이것이 만나고 떠남의 의미라는 것이 묵상되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떠나심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33년을 활동해 온 사도직을 정리하는 33이라는 숫자가 마음속

에 강하게 들어왔다. 33세에 세상을 떠나신 예수님의 삶이 묵상되면서 숫자에 마음이 머물렀다. 우리의 떠남의 '33'이라는 숫자의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신학적 의미를 찾다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숫자가 생각났다.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나타내며,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다고 한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삼위 일체의 하느님으로 셋은 '하느님의 세계'를 뜻하며, 3은 자주 신적인 것을 지시하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시간(과거-현재-미래)이나 공간(앞-여기-뒤, 위-여기-아래)이 셋으로 구분되는 현상들을 통해 3을 완성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신의 속성에 적용했던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처럼 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3이라는 숫자의 33년에 정리하는 의미가 새로웠고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

사도직을 정리하는 시기에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아르헨티나는 전국 이동 제한령으로 모두 강제로 집에 머물게 되었다. 코로나는 성당의 모든 모임을 중지시켰고 미사도 TV를 통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교회의 삶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삶이 전개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의무자가 격리 기간은 외적인 정리는 물론 내적으로도 많은 정리를 하게 하고 성찰을 하게 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전개되

면서 우리의 사도직 정리가 신자들에게는 새로운 교회의 삶에 적응하는 출애굽과 새로운 가나안을 향한 삶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기회일 것이다. 3월 20일부터 격리가 시작되어 8월 30일까지 매일 5분 성경 묵상을 보이스톡으로 성당 공동 카톡에 올리면서 잠자는 신앙을 조금은 흔들어주는 기회가 되었다. 이는 신자들이 떠남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의 정리로 이끄는 기간이었고, 하느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느꼈다.

신자들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허전한 마음이 들겠지만 신앙적으로는 신자들이 홀로서기를 할 때가 된 것이다. 우리의 떠남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회 삶의 적응에 도움이 되고 축복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신자들이 지금까지는 어딘가에 소속되고 친목을 위한 삶을 신앙으로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주일이면 성당으로 향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친교 안에서 내적 삶을 돌보며 그들이 머무는 곳은 가정이든 일터이든 어디서든지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진정한 신앙인으로 새로 나는 기회이기도 할 것이다.

아르헨티나 한인 신자들에게 33년이라는 긴 시간의 수녀들의 활동은 같은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온 은

총의 시간이었기에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크게 자리한다. 이집트에서 불러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돌보시고 보호하신 하느님께서 한인 성당 신자들을 몸소 돌보시기를 기도한다. 본당 설립 50년이 전환점이 되어 많은 변화와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자 한 명 한 명을 마음에 새기고 하느님의 축복을 청하며 감사의 노래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겠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시편 103,2)

05 병자영성체



아이들이 희망이다!

볼리비아 뿌에스또
김 아곱 수녀

“아이들이 희망이다”라고 한다면 볼리비아야말로 희망이 넘치는 곳이 아닌가 싶다. 거리를 지날 때마다 “에르마니따”(수녀를 일컫는 말)를 목청껏 외쳐 대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난과 조기 임신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굶주리고 마음의 상처로 슬픔과 좌절을 겪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공소에 교실이 완공된 후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이들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것이었다. 뿌에스또 지역은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대부분 농장에 들어가 품팔이를 하거나, 남의 집 빨래하기와 허드렛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은 집에 방치되거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여자아이들은 성폭력에 매우 취약하다. 그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아이들은 과제 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과제를 위한 재료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 숙제를 할 수도 없고, 학업성적도 떨어지고, 학교에서 따돌림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는 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굶주리지 않고,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공부방을 시작하게 되었다.



01

01 저녁 식사 시간



02 어린이, 청소년 선교단 활동

시작부터 대상자 선정에 따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다. 수용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대상자는 넘쳐났기 때문이다. 여러 시도 끝에 학교장님의 추천과 각 구역장들의 도움을 받았다. 성 신부님이 늘 강조하셨듯이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추천받아서 가정방문을 시작했다. 마음 같아서는 다 받아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우여곡절 끝에 공부방에 처음 오게 된 아이들은 그야말로 통제 불능이었다. 이들은 가정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했다. 5분 이상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밖을 오가며 집중하지 못했고, 서로 치고받으며 싸우기 일쑤였다. 이런 이들을 자리에 착석시키는 기간만 6개월이 넘게 걸렸다. 그렇게 차츰차츰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할 때가 많았다.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이라 한 끼 정도는 충분한 영양을 갖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과제를 다 마친 후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맛있는 식사를 위해 공부하는 시간 내내 잘 견디는 모습이 보였다. 덕분에 아이들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지구력과 인내심도 키워진 것 같았다.

처음에는 기본으로 30분 이상 늦게 오거나 식사 시간에 맞춰 오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오후 3시에 공부 시작인데 1시부터 와서는 자발적으로 마당을 청소하고, 뛰어노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한 업체에서는 운동복을 맞춰주었다. 공부하기 전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각자가 좋아하는 축구, 농구, 배구 등을 하며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한 해가 다르게 폭풍 성장하는 아이들, 그리고 무엇보다 해맑은 표정으로 웃는 날이 많아진 그들을 보며 내 입가에도 미소가 번져 나오게 되었다.



03 수업 전에 함께 모여 놀다가

공부방에 처음 왔을 때 초등학생이던 친구가 어느덧 중학생이 되어 동생들을 제법 잘 돌보기도 한다. 공부방의 대상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계속 이용할 수 있기를 요청하여 중등교사를 따로 채용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잘 키워 갈 수 있도록 청소년 선교단을 구성하였다. 주일마다 선교 교육을 하고 가난한 집 방문을 함께 하고 있다. 방문할 때에는 쌀이나 설탕 등 식료품을 나누기 위하여 공동 작업도 하고 있다. 망고가 제철일 때 버려지는 망고를 모아서 주스나 아이스바를 만들고, 실로 매듭 팔찌를 만드는 등 스스로 노동하여 모금한 금액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기도 한다. 견진반에 들어가면서 첫영성체

반 보조교사로 활동하거나 어린이 선교단 교사도 맡아서 하고 있다.

본당 신부님들도 공부방의 취지와 활동들을 관심 있게 보시며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 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공부방을 본당 산하 7개의 공소에 마련하였다. 아이들이 점점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느님께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항상 보잘것없고 가난한 이들의 힘신 하느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직접 돌보시고 이끌어 주고 계심을 믿기에 이 가난한 아이들은 희망이고 성사이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학교가 봉쇄되어 공부방에도 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 아이들이 활기를 되찾고, 희망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한다.



03 식물원



볼리비아에서 만난 아주 특별한 과일

볼리비아 비루비루탁아소
이 폴 수녀

기후 변화의 심각한 위기를 느끼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에 저희는 더운 날 땀을 식혀주고,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무 심기 운동을 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2년 전 한 자매가 어린 마라꾸야 나무를 주었습니다. 송충이, 개미, 더운 날씨로 인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무럭무럭 커서 열매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마라꾸야는 다른 과일에 비해 비싸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탁아소 아이들에게 유기농 과일을 먹이고, 공소 아이들과도 함께 나누기 위해 씨를 여기저기 심었습니다. 고맙게도 심은 곳마다 잘 자라주었고 열매도 평소 때 보다 두 배



나 크게 열렸습니다.

공동체에 특별하게 찾아온 “마라꾸야(Maracuya)” 열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미, 중앙아메리카의 식물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패션 프루트로 널리 알려진 과일입니다. 이곳에서는 ‘마라꾸야’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종이 있지만 우리가 키우는 노란색 마라꾸야입니다.

마라꾸야 열매를 뺏게 하는 벌(Abejorro Enloquece)

벌이 여러 번 왔다 가면 열매가 주렁! 주렁!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인 별명은 ‘성실한 일꾼’입니다. 자연의 신비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벌의 소중함도 새삼 진하게 체험합니다.

이 꽃은 시계꽃과에 속하며 식물의 일부가 그리스도의 열정





과 유사하기에 종교성을 상징합니다. ‘열정 꽃’은 1610년 예수회 선교사들이 과일의 꽃을 처음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을 상징하는 모양이라고 착안하여 ‘패션 프루트’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5개의 수술은 그리스도의 5군데 상처를, 3개의 암술대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킨 3개의 못을 상징하는데, 일본에서는 시계화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향이 난다고 해서 백향과라는 이름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응고된 방울처럼 되어있고, 색은 자줏빛으로 사순을 상징하며 개구리 알처럼 생겼습니다. 익으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열매 속에는 젤라틴 상태의 과육과 과즙, 씨가 들어있는데 독특한 향이 있으며 약간 새콤하고 씹쌀한 맛이 나며 비타민 A와 C가 많고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이곳에서는 설탕을 잔뜩 넣고 갈아서 주스로 마십니다. 기후 위기로부터 찾아온 우리 공동체에 효도 열매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깊은 뜻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관심을 갖고 찾아 보니 신비한 열매였습니다. 올해는 수확량이 많아 지역공동체와 함께 나눠 먹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열매를 주을 때마다 감사하다고 늘 말해줍니다. 그럼 그 다음날 또 떨어져 있습니다. “마라꾸야야~ 고맙다!”

두 번째로 빠빠야(Papaya)는 열대과일로 쉽게 만날 수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몸에도 좋은 과일입니다. 탁아소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주스로 만들



어 주고 있으며, 이곳의 거리에서는 음료수 대용으로 일상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빠빠야의 효능은 소화 기능을 돕고, 씨는 구충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피부와 다이어트에도 좋으며,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좋고, 비타민 A, B, C가 골고루 들어있는 과일입니다. 빠빠야 꽃향기는 아주 향긋하지만 과일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냄새가 납니다. 먹고 나서 씨를 버리면 자생으로 잘 크는 품종이라 많이 심어서 아이들에게 유기농 과일을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모래땅이라 생각보다 잘 자라지 않아 겨우 어렵사리 한 번 열려 수확하게 된 과일입니다.

산 홀리안 분원에서는 바람이 불어 익지 않고 떨어진 열매를 모아서 잼이나 빠빠야 생채 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수녀님들의 손은 만능이라 최대한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하여 우리 모두의 입을 즐겁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생채는 무생채와 같은 맛이 나는데 너무나 맛있고 기발한 아이디어 김치 대용 식품입니다. 산 홀리안 분원의 시골 방문을 가면 사람 얼굴만 한 빠빠야 나무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수녀님들이 방문하여 함께 잼도 만들고, 볶음 요리도 만들어 나누어 먹습니다. 하느님의 피조물이 신음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작은 노력과 실천들이 하느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Dios le bendiga” — 하느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볼리비아 산 훌리안
이 체칠리아 수녀

갑작스러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모든 대륙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으며,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의 상황에서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방향을 찾으며 지내다 보니 어느덧 올해의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대부분은 의료시설이 취약하듯 이곳 또한 의료체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심리적으로 불안함이 엄습해 왔고, 모든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저희들의 활동 또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안한 상황들이 선교사의 사명감으로 가득 찬 저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혼자 생활하는 할아버지께서 코로나로 입원하고 계신 격리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금씩 가정방문을 하면서 변화된 상황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생활고를 겪다 보니 무언가를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집 앞 빈 공터에서 채소를 팔거나 길에서 음식을 파는 사람들을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어슴푸레 해 질 무렵 길을 걷다 보면 고기 굽는 냄새와 빵 냄새가 저의 코를 자극하고, 군침을 돌게 했지만 감염 걱정이 앞서 쉽게 가게로 발걸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무엇이든 해보려고 시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희망을 느낄 수 있었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했고, 일이 없던 사람도 여전히 일이 없었기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변동 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라에서 여러 차례 주는 지원금을 받아 일시적이지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일 노동자들입니다. 일자리가 거의 없고, 직장을 잃어도 직장보험이 적용되어 국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주민등록증이 없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사람들은 생활고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는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등록증을 만들도록 독려하면서 그 비용을 지원해 주며,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일

양성 확진자들의 격리시설을 방문할 때 일정 거리를 두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였고, 코로나가 의심되는 환자들이 격리된 곳에 갔을 때 제 곁으로 가까이 오는 이의 발걸음만큼 뒷걸음질을 쳤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병자에게 먼저 다가서신 예수님과 사뭇 다른 모습에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내가 뒷걸음칠수록 그만큼 코로나를 넘을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지금의 이 상황을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과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함께 살아야겠다고 마음 정하니깐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풍경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을 할 수 있는 밀바탕을 마련해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직장을 잃은 어떤 부인에게 빵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오븐과 기본 재료를 지원해주었는데 막상 빵을 팔 수 있는 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팔기도 하고, 어쩌다 빈자리가 생겨 팔다 보면 먼저 자리 잡은 이들의 텃새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당일에 만든 빵을 팔았다는 기쁨에 함박웃음을 짓는 모습에 저는 안쓰러우면서도 흐뭇했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거리뿐만 아니라 저희의 방문 방식도 좀 변화가 있었답니다. 모터 택시를 이용해 방문하던 것을 될 수 있으면 걸어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차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책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집을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한 집에 오래 머물면서 대화하고, 시간의 흐름과 상황에 순응하다 보니 이웃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서로의 삶으로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 돌로레스가 자신이 일하는 곳인 빠빠야 농장에 저희를 초대하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삭막한 농지에서 볼리비아 여성이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

다. 35도가 웃도는 강렬한 태양빛 아래서 잡초를 제거하고, 삽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흔이 넘은 그들이(마리아 돌로레스와 사촌 동생) 하기에는 너무 고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들이 꼬까(마약의 주원료인 코카 잎)를 씹으며 일하는 모습은 혼란 풍경이지만 힘든 일을 견디기 위해 꼬까를 씹는 두 여인의 모습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 농장에서 수박을 수확하고, 빠빠야 열매를 따서 잼을 만들고 지내면서 이들의 일상의 삶에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어 이방인이 아닌 이웃으로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방문을 가게 된 곳에서 해바라기를 보게 되었는데 감탄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 준 해바라기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해바라기, 들꽃들, 수수밭의 수수들... 자연은 코로나19로 갇혀 있었던 저와는 달리 자기 자리에 묵묵히 피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냥 지나 칠 수 없어 사진도 찍고, 주변의 사물 속에서 포즈를 취해보면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자연이 주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 보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방문을 하다 보면 몸이 힘들고, 마음이 지칠 때도 있었고, 이웃의 삶이 나를 답답하게 만들어 침묵으로 길을



걸을 때 길가의 들꽃, 나무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을 주었고, 자연 안에서 한숨 돌리길 수 있는 여유와 위로로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마음 상한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처럼 말이지요!

일부러 힐링을 위해 경치가 좋은 자연을 찾을 필요가 없는 이곳 볼리비아 산 홀리안 매일의 작은 일상 안에서 이웃을 만나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연 안에서 치유를 받아 우리는 그 자연을 돌보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급변하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자연의 모습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서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 주고 치유와 위로를 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작은 열망이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토바이 택시 기사님의 “Dios le bendiga”(하느님의 축복을 빕니다)라는 축복 인사를 받으며 “당신도요!” 짧은 인사를 하고 목적지로 걸어가는데 순간 정말로 하느님의 축복이 내린 듯이 가슴 벅찬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이 기쁨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을 만나는 기쁨이 되기를 희망하며 모든 것 안에 당신의 뜻을 심어 놓는 하느님을 찾아 오늘 하루도 파이팅을 외쳐 봅니다.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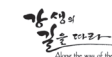


선교 수녀들이여!
하느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참으로 중요하고 요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사명도 실로 중요합니다.

선교 수녀들이여!
더욱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가십시오.
가서 가난하게 살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며,
가난한 교회가 되십시오.(설립자 신부)

설립자 성 신부의 말씀에 따라 성가소비녀들은 국내에서는 물론 아르헨티나, 중국, 볼리비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가난한 교회가 되어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 국민은행 036101-04-030207 재)성가소비녀회
TEL. 02)940-5815, 5816
※ 입금 후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을 생각해서 재생용지로 인쇄합니다.

해외 선교 지역

베트남 빈중

7, duong lo so 2,- khu TDC Phu Hoa, Khu 7, Phuong Phu Hoa,
Tp Thu Dau Mot, Tinh Binh Duong, Vietnam

중국 분양

032203 中國 山西省 汾陽市
汾阳三皇庙巷 39号 天教堂

중국 연길 연변호스피스병원

133000 中國 吉林省 延边朝鲜族自治州 延吉市
依兰镇 兴安村 延边宁养医院

캄보디아 바탐방

Pet Yiey Chee Catholic Compound
Rumcheck 1 Village, Rattanak Commune
Battambang District, Battambng City P.O. Box 330
Kingdom of Cambodia

필리핀 빠라나케

3822-C Mabini Dongalo, Parañaque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아르헨티나 한인성당

Parroquia de los Santos Mártires Coreanos
Thorne 1261 1406 Capital Federal BS. AS. Argentina

아르헨티나 차코 아비아 페라이 공소

Capilla N.Sara del Rosario Casa de las hermanas
3706 Avia Terai Chaco, Argentina

아르헨티나 알바레스 병원

Aranguren 2701(Hosp. Alvarez)1406
Capital Federal BS. AS. Argentina

아르헨티나 에바 페론 병원

Capilla del Hospital Eva Peron Nuestra Senora de Lujan
Balbin (101) 3150
B1650 NBN San Martin
BS. AS. Argentina

볼리비아(뿌에스토, 산 홀리안, 비루비루 탁아소)

Las Pequeñas Siervas de la Sagrada Familia
Casilla 25, Santa Cruz. Bolivia